4강 및 5강 보조자료

에메 사례

에메는 라캉의 환자였던 마그리트가 1930년에 쓴 소설 『Le détracteur 비방자』의 여주인공 이름이다. 라캉은 특히 마그리트가 쓴 소설과 시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는데 그것이 무의식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텍스트 자체이자 문학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다.

마그리트 팡텐느는 1885년 10월19일에 캉탈 지방의 모리아크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마그리트는 사고로 불에 타죽었는데 나중에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부모들은 마그리트라는 이름을 물려주었다. 마그리트의 엄마는 너무 민감했으며 불안감이 심해지면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거나 박해받는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것을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의 징후로 해석했다. 엄마의 기질과 가족의 분위기는 나중에 마그리트에게도 유전적으로 전달된다.

공부를 좋아했던 마그리트는 1910년에 결혼한 언니 집에서 살게 된다. 그녀는 우체국에 입사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고, 그래서 교사의 꿈을 포기한다. 마그리트는 나중에 우체국 여자 동료를 사랑하게 된다. 라캉이 '교묘한 음모가'이라고 부른 N de C라는 이 여자는 마그리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으며 파리의 유명한 여배우 위게트 뒤플로에 대해서도 말을 해준다. 마그리트는 신분 상승을 위해 같은 우체국 직원인 르네 앙지외와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르네는 사색적인 태도를 싫어했고, 아내가 독서와 외국어 공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자전거 여행과 운동을 좋아했던 실용주의자 르네는 모든 면에서 마그리트와 정반대였다. 마그리트는 불안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없이 웃기도 했고, 충동적으로 걸어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손이 더러워질까 봐 계속 씻는 버릇이 생겼다. 이때 과부가 된 언니가 마그리트의 집에 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함께 살게 된다. 마그리트는 언니에게 복종하면서도 언니의 간섭을 싫어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1921년 7월에 마그리트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임신을 하면서 우울증 증세를 동반한 피해망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르네의 머리에 다리미를 던지기도 했고, 어느 날은 동료의 자전거 바퀴를 칼로 찔러 바람을 빼버리기도 했다. 1922년 3월에 딸을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탯줄로 인한 질식사였는데 그녀는 이러한 불행이 적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주장했다. 1923년 7월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아기에게 열성을 보였다. 그녀는 어떤 때는 아들에게 토할 정도로 너무 많이 젖을 물리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젖 주는 시간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어느 날에는 유모차와 너무 가깝게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수들을 고소하는가 하면, 또 어느 날에는 아이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아이가 마차 바퀴에 묻은 더러운 기름을 빠는 것을 그냥 놔둔 적도 있었다. 마그리트의 언니 엘리즈가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면서 마그리트는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우체국에 사표를 제출한다. 마그리트는 미지의 땅에 가서 행운을 만나 소설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즈와 르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처럼 괴상한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마그리트를 에피네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마그리트는 현실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과대망상증적인 태도에 빠진다. 6개월 후에야 가족의 요구로 풀려났는데 그녀는 1925년 8월에 가족을 버리고 파리로 전근을 요청해서 가게된다. 그녀는 낮에는 우체국 직원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근무가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 드나들며 공부를 했고 지성인처럼 행동했다. 이중생활이 계속되면서 정신착란 증세는 훨씬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누군가 위게트 뒤플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은 그녀는 여배우가 자기를 박해하려 한다고 믿게 된다. 1923년 알퐁스 도데의 손자가 자살하게 되는데 알퐁스 도데는 손자가 자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손자를 살해했다고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그리트는 이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러시아 비밀경찰이 자신의 아들 디디에를 죽이려고 계획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자신을 민족 간의 형재애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 악당들에 맞서 싸우는 십자군 전사로 간주하면서 영국 황태자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그에게 시와 익명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녀는 색광증의 대상인 황태자의 생활과 여행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오려 방의 여기저기에 붙여놓았다. 여배우를 습격하기 8개월 전인 1930년8월에 그녀는 두 편의 소설을 연이어 써서 타자를 쳐달라고 맡겼다. 그는 이 소설들을 영국 황태자에게 바치고자 하였다. 마그리트의 소설에는 그녀의 광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등장한다. 1930년 9월13일에 마그리트는 이 두 원고에 처녓적 성으로 사인을 한 후 플라마리옹 출판사에 보내지만 출판을 거절당한다. 출판사에서 소동을 벌인 후 그녀는 자신의 원고를 영국 황태자에게 보낸다. 1931년 4월18일 마그리트는 생-조르주 극장에 도착한 여배우 위게트 뒤플로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된다.